



초록의 바다로 풍덩



시골 정 가득 '금강여울축제' '세계조롱박축제'

충남

본격적인 피서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름철 피서지는 뭘니 뭘니 해도 탁 트인 백사장과 피약별을 피할 수 있는 파라솔,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닷가가 제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지만 더위를 피해 바닷가를 찾았다가 수많은 인파에 밀려 제대로 피서도 즐기지도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보내다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직장인 혹은 가족, 연인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인 만큼 올해 여름에는 파란 바다를 잠시 뒤로하고 포근한 시골의 정서를 느껴볼 수 있는 충남의 산과 강으로 떠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금강여울축제 = 아름다운 금강의 여울에 펼쳐지는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금강여울축제'가 30일부터 31일까지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에서 '열두 여울에 흐르는 생명의 소리'라는 주제로 열린다.

지난 1992년 금강민속축제로 시작된 이 축제는 기존 민속문화 위주의 행사에 시원한 물놀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해져 2014년 '금강여울축제'로 재탄생했다.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지만 강촌과 산촌, 농촌을 보고 듣고 즐기는 것은 물론 농작물 수확 체험 등 다양한 경험까지 할 수 있는 금강의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

'안전한 여울 물놀이' 테마를 기본으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게 이 축제의 특징. 강촌마을의 강변에서 신나게 즐기는 '대형 물 슬라이딩' 프로그램과 강물 위에서 즐기는 '대형 오리 튜브체험' 등 '물벼락(樂)'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또 가족이 한 편이 돼 다른 가족들에게 물총을 쏘아대는 '가족물총대전'은 시작하자마자 짜릿한 흥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물총에서 발사된 강물을 맞는 순간 무더위를 날리고 신바람이 나게 되는 것은 덤이다.

이 축제의 또 다른 매력은 어릴 적 외갓집의 정취를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있다. 행사장에서

▼금강여울축제 '여 치집만들기'. <사진제공=금산군>



강에서 물총싸움·다슬기 잡기 경운기 타고 수박·블루베리 따기 소 달구지 타고 박칼국수 먹기 놀이 보면 하루가 너무나 짧아

경운기를 타고 인근 농가에 가서 수박 및 블루베리 등을 수확해 보는 '농작물 수확체험', 자연 속에서 찾은 고운 빛깔의 '붕송아 물놀이', 청정 금강에서 즐기는 민물고기·다슬기 잡기 등이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금강놀이마당을 찾은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공연도 마련됐다.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의 농바우깡시(충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32호)이 진행된다. 농바우깡시기는 장수의 갑옷이 들어 있다고 전해지는 농바우에 동양줄을 맨 뒤 잡아당기면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여성 주도 기우제이다. '고시기'란 '꼴다', '꼴아내린다'는 뜻의 금산의 사투리이다. 이어 인기 가수 초청 공연과 재즈팝이 어우러지는 무대는 젊은이들에게 흥미를 끌 만하다.

31일 오후 6시부터 6시30분에 진행되는 금산농악판굿 이후에는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6호인 물떼기 농요 시연이 이뤄진다. 물떼기 농요는 행사장소인 부리면 평촌리를 중심으로 벌말, 물떼기 등에서 300여 년 전부터 농민들이 두레 농사를 지으며 부르던 구전농요.

체험료는 농작물 수확체험의 경우 블루베리 6000원, 수박체험은 6000원이다. 여치집 만들기는 1000원, 금강여울열차는 2000원, 모든 체험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외갓집 체험패키지는 1만5000원이다. (문의: 041-750-2411, 041-754-2724)

◇제6회 세계 조롱박축제 = 충남 칠갑산의 별명은 '충남의 알프스'이다. 그래서 알프스 마을도 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박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6회 세계 조롱박축제'가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 칠갑산 도립공원의 알프스 마을(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에서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열린다.

알프스마을은 매년 여름 '세계조롱박축제' 외에 한겨울에는 중부권 대표 겨울축제인 '칠갑산 얼음분수축제'를 여는 것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조롱박 축제에서는 전 세계 총 70여 종의 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소원타널, 혼탁 박 타널, 이색 박 타널, 대박타널, 컬러 박 타널 등 주제별로 다양한 박을 볼 수 있도록 총 2.4km에 이르는 전시타널이 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의 박 공예 전문가들이 한뼘한뼘 공들여 조각한 300여 점의 다양한 박 공예품이 관광객들을 맞는다.

이와 함께 마백·보습·향산화 효과가 우수한 박 추출물을 첨가한 천연화장품 만들기, 천연 박 미스트 만들기, 조롱박에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된다. 알프스마을에서 재배한 식용 박으로 만든 박탕수, 박튀김, 박익전, 박칼국수, 박냉국수 등 이색음식도 맛볼 수 있다.

행사장 인근에는 와이어에 몸을 매달고 하늘을 나는 경험과 함께 칠갑산의 맑은 공기와 멋진 풍경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레저시설 '집트레(공중 하강체험시설)', 과거 짐승로 사용하던 달구지를 타고 축제장을 돌아보는 '소달구지 타기', 승마 등도 마음만 먹으면 즐길 수 있다.

또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구분된 수영장과 산비탈 아래 졸졸졸 흐르는 냇물은 시원한 칠갑산 바람과 함께 무더위를 날리기에 충분하다.

▲세계 조롱박 축제 '소달구지 체험'. <사진제공=알프스마을>
▼금강여울축제 '물고기잡이'. <사진제공=금산군>



특히 알프스 마을은 천장호 출렁다리, 칠갑산 천문대 등이 가까워 조롱박 축제와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지난 2009년 207m의 길이를 자랑하는 '천장호 출렁다리(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4-23 부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다. 다리 한 가운데에는 청양의 특산물인 구기자과 고추를 형상화한 높이 16m의 주탑이 설치돼 있다.

또 칠갑산도립공원의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청양군 정산면 한티고개길 178-46)는 일반인과 학생들을 위한 천문우주 테마 과학관이다. 국내 최대 굴절망원경이 설치된 주관측실은 주로 낮 시간대 태양의 흑점과 홍염 관측이 이뤄지며, 국내 최초 180도 반구형 3D 슬라이딩 시스템을 갖춘 보조관측실에서는 400mm 반사망원경 등을 이용해 야간 관측이 가능하다.

황준환 알프스마을 대표는 "칠갑산 알프스 마을은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이며 놀이와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풍부하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알프스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뜻깊은 피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041-942-0797-8)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대전일보 박영문 기자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 식사업무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